광주·전남 코로나 기세 꺾이나… 3일 연속 1만명대 유지

광주·전남 확진자 2만명선에서 1만1760명으로 절반 줄어
전국, 위중증·사망자 감소세…2주후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주 초반인 월요일엔 주말·휴일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5801명, 전남 5959명 등 1만 1760명이 확진됐다. 이달초까지 2만명대를 오르내리던 광주·전남은 지난 2일 1만9193명, 3일 1만7439명 등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3만 4301명)보다 10만 7111명 감소한 12만 7190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22일(9만 9562명)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18만 7182명과 비교하면 5만 9992명, 2주 전인 21일 20만 9124명보다 8만 1934명 적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31일 1315명이 최대치였던 것 같다"며 "위중증 환자는 크게 증가하는 현상 없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40만 5000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날 기준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8만5000명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당초 위중증 환자가 1300~1800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손 반장은 "아마 조금 더 낮은 축에서 정점을 형성하면서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손 반장은 사망자에 대해서도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갈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은 사망자가 600~700명, 8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그렇게 증가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3월 24·25일께 주간 평균 359명이 정점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위중증·사망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늘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데, 2주 후 상황이 안정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손 반장은 다만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기준을 절대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위중증·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안정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도 안정화 경향이 나타나면 거리두기 조치 전면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확진자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선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에 따른 현상이라"며 "하루 확진자 수에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 수요일부터 다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수치를 절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은 해제했지만, 약국 등에의 판매가격은 6000원 그대로여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오미크론-스텔스 혼합 'XE 변이' 출현에 촉각

"방역전략 변경 가능성 크지 않지만 전파력 따라 거리두기 고려"

최근 오미크론 변이(BA.1)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혼합 변이인 'XE' 감염 사례가 해외 곳곳에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변이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새 변이의) 전파력, 치명률, 백신 예방접종 저항력 등 3가지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방역전략의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전파력이 얼마나 빨라지고, 치명률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기존 예방접종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와 중증화·사망 방지 효과는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집중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XE는 오미크론 계열 변이에서 BA.2에 이어 나온 것"이라며 "앞서 BA.2가 BA.1보다 전파력은 좀 더 빠르지만,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이 없었던 것처럼 XE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유행 전망과 관련해선 BA.2가 BA.1을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전체 오미크론 유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는 BA.1 유행이 크게 한번 지나고 난 후 BA.2가 우세종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고, 2번의 유행 정점을 형성하는 패턴을 보였다"면서 "우리나라는 BA.2가 BA.1을 대체하면서 전체 유행이 길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속속 입국

상반기 중 1만2330명 예정…전남 14개 시·군에 1230명 배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시작됐다.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구하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전남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만 2330명 가운데 100명이 올해 처음 국내에 입국한 것을 비롯, 전남지역 14개 시·군에 배정된 1230명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459명이 투입돼 가장 많고 해남(134명),담양(134명), 함평(111명), 진도(104명), 영암(73명), 고흥(47명), 강진(44명) 등의 순이다.

전남도측은 고흥지역 마늘·고추 농가에 투입될 계절근로자들이 다음달 초순 투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국내 자가격리 기간(2주) 들어가는 비용을 농·어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농·어가측 부담도 다소 완화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당장,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지난해보다 짧아졌고 해남·장흥·담양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무리 해도 적자'라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자가격리 비용을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다. 무안은 절반, 영암은 30%를 지원해줘 그만큼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임에도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 세계 한인들, 우크라 난민 돕는다

LA한인회·화랑청소년재단·재미차세대협의회 등 성금
각국 민주평통 자문위원·독일 내 한인단체 등도 지원금

세계 각국의 한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전을 잃거나 국경을 넘은 난민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일 동포신문과 동포 단체들에 따르면 각국 동포사회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내 고려인과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쳐 긴급 송금하거나 구호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한인회와 화랑청소년재단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고려인 10가구에 1차 지원금 500달러(약 61만원)씩 전달했다.

학교 기숙사에 남아있는 고려인, 현지인 학생들에게도 감자 1000kg을 전달했다. 나아가 고려인학교에 피난 지원금 5000달러(약 610만원)를 송금해 남아있는 가족의 한국 입국을 도왔다.

두 기관은 곧 고려인 40가구에 500달러씩 지원금을 송금하기로 했다.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는 지난달 말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방문해 긴급 구호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AAYC의 후원금 모금에는 뉴저지한인회,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폴 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 등이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교계는 '우크라이나 돕기운동본부'를 결성해 피해자를 돕는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캠페인을 전개한 뒤 5월 초 관련 단체에 송금할 예정이다.

글로벌어린이재단(GCF) 미국 뉴저지지부는 오는 9일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바자'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 구호 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각국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고 있다.

중동부유럽협의회는 지난달 4만 달러 상당의 식료품을 폴란드 정부 구호기관에 1차로 송금했다. 최근 2차로 4만7000 달러 상당의 식료품과 기초의약품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선교사에게 보냈다.

또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4만5000 달러 상당의 식료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동포총연합회를 비롯한 독일 내 한인 단체들도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주재 우크라이나 총영사관을 찾아가 모금한 긴급구호 성금 2440유로를 기부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급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지 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